

香砂養胃湯의 基源, 變遷過程 및 構成原理

강미정·이준희·고병희·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ve Principles of Hyangsayangyi-tang

Mi-Jeong Kang, Jun-Hee Lee, Byung-Hee Koh, Eui-Ju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rigin, changes and the constructive principles of Hyangsayangyi-tang (XiangShaYangWeiTang).

2. Methods

Hyangsayangyi-tang and other related prescriptions were analyzed in terms of pathology, based on 『Donguibogam (東醫寶鑑)』, 『Donguisusebowon·Chobongwon(東醫壽世保元·草本卷)』, 『Donguisusebowon·Gabobon(東醫壽世保元·甲午本)』, 『Donguisusebowon·Sinchukbon(東醫壽世保元·辛丑本)』.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origin of Hyangsayangyi-tang is Hyangsayukgunja-tang from 『Gongshin Uigamseo(龔信·醫鑑書)』. Hyangsayangyi-tang inherited some of the principles from 『Euihangangmok(醫學綱目)』 Jeonssiyigong-san`s (全氏異功散) application.
- (2) 『Gabobon(甲午本)』`s prescription emphasizes the effect of loosen up by using Pogostemonis Herba(藿香). 『Sinchukbon(辛丑本)』`s prescription emphasizes the effect of warm up stomach by using Zingiberis Rhizoma(乾薑).
- (3) Ginseng Radix(人蔘), Atractlodis Rhizoma White(白朮), Glycyrrhizae Radix(甘草), Paeoniae Radix Alba(白芍藥) support Soeumin`s spleen root (脾元), and Zingiberis Rhizoma(乾薑), Myristicae Semen(肉豆蔻), warm up stomach, and Pinelliae Rhizoma(半夏), Citri Pericarpium(陳皮) circulate Qi, Crataegi Fructus(山楂), Amomi Fructus(砂仁), Cyperi Rhizoma(香附子) encourage digestion to maintain descending Yin.

Key Words : Hyangsayangyi-tang(Xiangshayangwei-tang), Origin, Composition, Soeumin

• 접수일 2010년 07월 28일; 심사일 2010년 08월 06일;
승인일 2010년 08월 27일
•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0 Fax : +82-2-958-9234
E-mail : sasangin@khu.ac.kr

I. 緒 論

四象醫學의 病證藥理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病證과 藥理가 분리되어 있고 藥方의 대부분 古方¹⁾과 유사한 형태였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 病證과 藥理를 결합하고 있으며 古方인 經驗藥方과 新方²⁾을 동시에 기술하면서 新方을 위주로 病證論을 진행한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 病證論의 전개가 『甲午本』과 유사하며 藥理에 있어 古方인 經驗藥方은 『甲午本』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新方만 개초한다.¹⁾

향사양위탕은 『東醫壽世保元·辛丑本』 『新定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의 하나로 少陰人胃受寒裏寒病的 太陰證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소화기계의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식욕부진, 흉통, 위염, 위허수, 위무력등에 응용되어 왔다. 향사양위탕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김²⁾이 『東醫壽世保元』 이전의 40여종의 의서에 수록된 향사육군자탕 및 향사양위탕과 수록된 소음인 향사양위탕과의 처방 구성 및 효능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시행하여 유사점을 발견하고 소음인 향사양위탕이 소음인 약물로 구성되어 소음인의 비위질환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실험연구로는 김³⁾의 문헌적 효능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자 쥐의 소화관 및 중추신경에 대한 작용을 관찰하여 장관수축운동 억제작용과 진통, 해열 효과 및 항경련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⁴⁾의 향사양위탕 전탕액이 노화쥐의 비장, 위장, 췌장세포의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동물 실험 연구가 있다. 향사양위탕의 기원과 변천사에 대한 비교 연구,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의 소음인 약리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제시되는 조문과 처방을 비

- 1) 古方은 漢의 『傷寒論』의 處方뿐만 아니라 宋元明 醫家들의 處方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經驗藥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研究에서는 古方으로 통일하였다.
- 2) 新方은 東武가 새로이 만든 處方으로 古方의 相對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新定藥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研究에서는 新方으로 통일하였다.

교 연구하여 향사양위탕의 기원, 변천, 구성에 대해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논문에 기재된 조문 및 조문 번호는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과 『東武遺稿(海東)』는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에서 편찬한 『四象體質科 臨床便覽』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에서 편찬한 『四象醫學』을 기준으로 하였다.

1. 『東醫壽世保元』의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經驗行用要藥 九方』 중 향사양위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처방을 기초로 고찰한다.
2. 고찰순서는 서지학적 순서에 의한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이하 『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이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이하 『辛丑本』)로 각각 향사양위탕과 관련된 조문 및 처방을 비교 연구한다.
3. 동무 藥性歌와 『東武遺稿(海東)』의 本草에 관한 효능을 참고하였다.

III. 考 察

1. 香砂養胃湯의 기원에 대한 고찰

향사양위탕의 기원은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經驗行用要藥 十三方』에서 香砂六君子湯³⁾으로 볼 수 있다. 이제마는 龔信의 『醫鑑書』를 출전으로 명기하고 “不思飲食 食不化 食後倒飽者”를 주치증으로 하였으며 마땅히 소음인 약제가 아닌 白茯苓을 거하고 白何首烏를 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⁶⁾

『東醫寶鑑』에서도 이제마가 논술한 龔信 『醫鑑書』 기원의 香砂六君子湯⁴⁾을 찾아볼 수 있는데 동

- 3) 香附子 白朮 白茯苓 半夏 陳皮 厚朴 白豆蔻 各一錢 人參 甘草 木香 縮砂 益智仁 各五分 薑 三片 棗 二枚
○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不思飲食 食不下 食後倒飽
○ 今考更定 此方 當去 白茯苓 當用 白何首烏
- 4) 治不思飲食 食不化 食後倒飽者 脾虛也 香附子 白朮 白茯苓 陳皮 半夏 白豆蔻 厚朴 各 4g 縮砂 人參 木香

무의 주치증과 유사하게 논술하면서도 “治不思飲食 食不化 食後倒飽者 脾虛也”로脾虛한 경우에 쓰도록 한다. 향사육군자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人蔘, 白朮, 茯苓, 甘草의 四君子湯에 半夏, 陳皮를 가하면 六君子湯이 되고, 여기에 香附子(혹 木香), 砂仁, 白豆蔻, 益智仁, 厚朴을 가하여 쓴 처방이다.⁷

한편 『東醫寶鑑』에는 龔信的 아들인 龔廷賢이 저술한 『萬病回春』기원의 香砂六君子湯⁵⁾도 논술되어 있다. 이제마는 龔信을 醫道를 부흥시킨 사람의 하나로 그의 공적을 높게 보았으며, 처방구성을 살펴보면 『萬病回春』기원의 향사육군자탕에는 山藥, 烏梅등의 소음인 향사양위탕에는 없는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白豆蔻와 같은 溫胃之劑가 들어 있지 않아 소음인 향사양위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醫鑑書』에 기재된 향사육군자탕이 소음인 향사양위탕의 기원이라고 결론지었다.

少陰人 향사양위탕과 처방명이 동일한 『醫鑑書』기원의 香砂養胃湯⁶⁾을 기원 처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전 한⁵⁾의 연구에서도 향사양위탕은 반하를 사용하는 二陳湯계통의 처방이므로 平胃散 계통의 처방인 古方 香砂養胃湯보다 二陳湯 계통의 향사육군자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필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향사육군자탕을 기원처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東醫壽世保元』에서 동무 스스로 송원명의가들의 처방중 소음인에게 사용해본 경험을 저술한 처방에 향사육군자탕만이 논의가 되어 있다. 둘째, 향사육군자탕의 처방 형성 과정에서 『醫鑑書』기원의 향사양위탕은 향

사육군자탕의 변방임을 알 수 있다. 향사육군자탕은 사군자탕에 半夏, 陳皮를 가하여 구성된 육군자탕에 芳香化濕 약재와 白豆蔻, 益智仁 등의 溫熱한 약재를 가하여 이루어진다. 반면 향사양위탕은 향사육군자탕에서 半夏를 去하고 蒼朮을 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향사육군자탕의 변방이다. 셋째, 두 처방 모두 소음인 향사양위탕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처방구성을 살펴보면 향사육군자탕이 소음인 향사양위탕과 더 유사하다. 향사육군자탕과 소음인 향사양위탕에는 半夏가 포함되어 있으나 향사양위탕의 蒼朮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사육군자탕에는 구역을 멈추는 辛熱한 약재인 益智仁이 있고, 소음인 향사양위탕에도 구역을 멈추면서 辛熱한 약성의 乾薑이 있으나, 향사양위탕에는 乾薑이나 益智仁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약재가 없어 소음인 향사양위탕은 향사육군자탕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辛丑本』에서 張仲景의 瀉心湯變劑를 논하면서 香砂養胃湯 자리에 香砂六君子湯을 논하는데 이것 또한 향사육군자탕이 향사양위탕의 기원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⁷⁾.

2. 香砂養胃湯의 변천에 대한 고찰(Table 1.)

1) 『草本卷』의 錢氏異功散

『草本卷』의 소음인 藥方은 대부분 古方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甲午本』에서 대부분 활용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소음인 약리는 『甲午本』에서 병증의 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古方을 원래 처방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개약재를 체질에 맞게 改抄 하였는데, 『草本卷』에 언급된 처방 중 錢氏異功散⁸⁾이 향사양위탕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마는 龔信 『醫鑑書』기원 향사육군자탕의 白茯苓을 白何首烏로 바꿔 사용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원리를 『草本卷』의 四君子湯⁹⁾에서 찾아볼 수 있다.

益智仁 甘草各 2g. 剉作一貼入薑三棗二水煎服(醫鑑).
비고 - 東醫寶鑑 ; 內傷 ; 內傷脾胃脾虛實
內傷脾胃則不思食不嗜食 平胃散 寬中進食丸 生胃丹 啓脾元 平胃散 二麴 香砂六君子湯 香砂養胃湯 人蔘 開胃湯 安胃散 穀神湯
비고 -東醫寶鑑 ; 胸 ; 心痛有九種 中 食心痛
因食生冷 或食物過多 以致心痛 宜香蘇散方見寒門 平胃散方見五臟 香砂養胃湯方見內傷 痞者 胸膈飽悶而不舒暢也(醫鑑).

5) 香附子 縮砂研 厚朴 陳皮 人蔘 白朮 白芍藥炒 蒼朮炒 山藥炒各4g 甘草灸2g 剉作一貼 入薑三片 烏梅一箇 水煎服(回春)

6) 治飲食不思 痞悶不舒 此胃寒也.
香附子 白朮 4g 縮砂 蒼朮 陳皮 厚朴 白茯苓 白豆蔻 各3g 人蔘 木香 甘草 各 2g 剉作一貼 入薑三棗二水煎(醫鑑).

7) 7-12 藿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 皆張仲景瀉心湯之變劑也 此所謂青於藍者 出於藍 噫 青雖自青 若非其藍 青何得青.

8) 治脾胃虛弱 飲食鮮少 挾滯 加 山楂 神麴 砂仁, 挾滯 加 半夏 草果 青皮, 虛癩 加 檳榔 吳茱萸 桂心, 暑感 加 白扁豆 香薷 厚朴
白朮 白芍藥 人蔘 橘皮 木香 灸甘草 各一錢

Table 1. Compositions of Original and Changed Prescriptions and Indications of Hyangsayangyi-tang

宋元明 三代醫家 龔信 醫鑑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	藥性歌 - 東武遺稿
香砂六君子湯	香砂養胃湯	錢氏異功散	香砂養胃湯	香砂養胃湯	
人蔘 0.5	人蔘 0.5	人蔘 1	人蔘 1	人蔘 1	補脾和脾 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營養衛
白朮 1	白朮 1	白朮 1	白朮 1	白朮 1	健脾直脾 甘溫 健脾強胃 止瀉除濕 兼散痰痞
		白芍藥 1	白芍藥 1	白芍藥 1	收斂脾元 酸寒 能收能補 瀉痢腹痛 虛寒勿用
甘草炙 0.5	甘草炙 0.5	甘草炙 1	甘草炙 1	甘草炙 1	固脾立脾 甘溫 調和諸藥 灸則溫中 生則瀉火
			香附子 1	香附子 1	開脾之胃氣 而消食進食 甘溫 快氣開鬱 止痛調經 更消宿食
半夏 1			半夏 1	半夏 1	製半夏 消脾痰 味辛 健脾燥濕 痰厥頭痛 嗽嘔堪入
陳皮 1	陳皮 1	橘皮 1	陳皮 1	陳皮 1	錯綜脾元 參伍勻調 甘溫 順氣寬膈 留白和脾 去白消痰
				乾薑 1	溫肉裡 味辛 表解風寒 炮苦逐冷 虛熱尤堪
			山楂 1	山楂 1	磨消肉食 療疝催瘡 消膨健胃
縮砂 0.5	縮砂 1		砂仁 1	砂仁 1	定魄 性溫 養胃進食 止痛安胎 通經破滯
白豆蔻 1	白豆蔻 1		白豆蔻 1	白豆蔻 1	辛溫 能去瘴翳 益氣調元 止嘔翻胃
白茯苓 1	白茯苓 1				辛溫 安神益氣 遺溺遺精 嘔逆皆治
益智仁 0.5					苦溫 消脹泄滿 痰氣瀉痢 其功不淺
厚朴 1	厚朴 1				開脾之胃氣 而消食進食
木香 0.5	木香 0.5	木香 1			微溫 散滯和胃 諸氣能調 行肝瀉肺
	蒼朮 1				甘溫 健脾燥濕 發汗寬中 更祛瘴疫
			藿香 1		安氣 辛溫 能止嘔吐 發散風寒 霍亂爲主
生薑 3片	生薑 3片		生薑 3片	生薑 3片	性溫 通暢神明 痰嗽嘔吐 開胃極靈
大棗 2枚	大棗 2枚		大棗 2枚	大棗 2枚	味甘 調和百藥 益氣養脾 中滿休嘔
此方 當去 白茯苓 當用 白何首烏		挾滯 加 山楂 神麴 砂仁			

* 약재명 옆의 숫자는 용량을 의미하며, 단위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錢을 생략한 것임.

脾元虛弱을 치료하기 위해 人蔘, 白朮, 炙甘草, 白何鳥를 一錢씩 사용하는 처방으로 古方 사군자탕의 白茯苓을 白何首烏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물

론 향사양위탕의 처방구성안에 人蔘, 白朮, 甘草가 포함되어 있으며脾胃虛弱을 주치한다는 점에서 향사양위탕에 사군자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향사양위탕은 白茯苓을 白芍藥으로 바꾼 처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⁶⁾

白何首烏¹⁰⁾는 白何鳥理中湯에서 人蔘과 性

9) 治脾元虛弱 本方 加 當歸 桂皮 治休癆病 本方 加 訶子 肉豆蔻 炮附子 治氣虛泄痢
人蔘 白朮 炙甘草 白何鳥 各一錢
비고 - 東醫寶鑑 ; [錢氏異功散] 治脾胃虛弱 飲食不進 未能消化 心胸痞悶
人蔘 白朮 白茯苓 橘皮 木香 甘草 各 4g. 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綱目).

10) 有人蔘 則用人蔘 無人蔘 則用白何首烏 白何首烏 與 人蔘 性味相近 而清越之力 不及 溫補之力 過之 不無異同之處

味가 비슷하나 淸越之力이 부족한 약재로 人蓼을 대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辛丑本』 처방 중에서도 白何首烏와 人蓼을 모두 사용하는 처방은 升陽益氣湯과 升陽益氣附子湯 뿐이다. 전씨이공산은 人蓼과 비슷한 白何首烏 대신 脾元을 收斂시키는 白芍藥을 사용하기 시작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전씨이공산은 脾胃虛弱 飮食鮮少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향사양위탕과 주치증이 비슷하다. 人蓼, 白朮, 白芍藥, 甘草의 脾元을 補益하는 약재에 消脾痰하거나 消食進食하여 和脾胃의 역할을 하는 橘皮와 木香이 들어 있으며 더욱이 活套중에 滯가 검하였을 때 消導之劑인 山查, 神麩, 砂仁을 가미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香砂養胃湯의 구성원리와 유사해진다.

전씨이공산의 모든 약재는 향사양위탕의 구성약재에 포함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공통점이 많지만 전씨이공산을 향사양위탕의 기원방이나 변천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하와 같다. 첫째, 전씨이공산을 挾滯로만 活套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活套법을 동시에 제시하였으나 다른 경우에는 향사양위탕의 구성원리를 찾아볼 수 없다. 둘째, 향사육군자탕과 향사양위탕은 구성원리가 동일하지만, 전씨이공산에는 白豆蔻, 乾薑, 益智仁 등과 같이 溫胃止嘔 하는 약재가 없다는 점에서 향사양위탕의 구성원리와 차이점이 있다. 다만 전씨이공산에서 白茯苓대신 白芍藥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과, 挾滯한 경우 山查, 砂仁을 더해서 사용한 원리, 향사육군자탕은 개개 약재가 용량이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 반면 전씨이공산은 각 1錢씩 동량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후 향사양위탕의 구성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2) 『甲午本』의 香砂養胃湯

『甲午本』에서 香砂養胃湯¹¹⁾이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少陰人 外感膈病論』에서 사람이 미친 것과 같으면서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한 것은 膈間

의 陽氣가 열로 인해 곤란해지고 胸間의 胃氣가 寒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이라 논술하면서, 胸間의 胃氣가 怕寒하여 淸爽하면 마땅히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을 和解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다¹²⁾.

또, 『少陰人 內觸胃病論』에서 대장과 위의 기가 허약하여 음식물이 체한 지 3일 이내에 새로운 음식을 먹은 것이 더하여 쌓여 소화되지 않아 下利하는 경우에 藿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桂附藿陳理中湯을 쓴다고 하였다. 배가 그득한 것이 즐지 않으며 몸이 누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아 배가 부르며 땀이 경항부에서 돌아오는 증상이 있는 積滯증에 巴豆丹으로 한두번 下利시킨후에 薑朮破積湯 香砂養胃湯을 和解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¹³⁾. 下利淸穀을 여러날 동안 수십번해도 입이 마르지 않고 냉기가 밖으로 풀리는 太陰證 下利에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을 써서 助溫緩하게 하면 좋다고 하였다¹⁴⁾.

『甲午本』의 향사양위탕은 表之表病에서 外感 表證이 있으면서 胸間의 胃氣가 怕寒하여 積滯가 형성되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증상이 생겨 少腹硬滿

險病 危證 人蓼二錢以上 不可全恃白何首烏代用 古方 經驗不多 藥材生疎 故也

11) 人蓼 白朮 白芍藥 炙甘草 半夏 香附子 陳皮 藿香 砂仁 白豆蔻 山查肉 各一錢 生薑 三片 大棗 二枚.

12) 甲6-12 今考更定已上諸證 不當用 抵當湯 桃仁承氣湯 當用 人蓼桂枝湯. 藥不可以不盡善擇美則 別爲增附. 此證 其人如狂者 膈間陽氣困熱也. 少腹硬滿者 胸間胃氣怕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膈間陽氣困熱而煩惱則 當用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升陽八物湯 升補之 胸間胃氣怕寒而淸爽則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和解之 若外熱包裡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則 當用 巴豆丹 下利二度 因藿香正氣散 升陽八物湯 和解而峻補之.

13) 甲7-13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下達膈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塞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 下利之證也. 此證 當用 理中湯 四順理中湯 厚朴半夏湯 四逆湯 而四逆之附子不宜生用. 赤石脂禹餘糧湯之赤石脂禹餘糧 不宜單用. 茵陳蒿湯 當去大黃梔子. 瀉心湯 當去黃芩黃連. 藥不可以不盡善擇美則 別爲增附. 已上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桂附藿陳理中湯. 腹滿不減減不足言 身黃小便不利腹微滿汗出劑頸而還 此二證 有積滯也 當用 巴豆丹 下利二度 因以薑朮破積湯 香砂養胃湯 和解之.

14) 甲7-56 下利淸穀者 雖日數十行 口中必不燥乾而冷氣外解也 當用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以助溫緩好也. 下利淸水者 雖日一二行 口中必益燥乾而冷氣內侵也 當用 芎歸蘇陳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以制陰寒 可也.

해진 경우에 和解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또, 裏之表病에서 胃氣虛弱 食物蹇滯로 인하여 생긴 太陰證 下利에 膈膜의 陽氣가 胸間의 寒氣를 감싸서 毒氣가 안에서 맏히는 것과 같이 積滯가 심하면 巴豆로 下利시켜 積滯를 풀어준 후 사용하거나, 和解시키면서 동시에 寒으로 인해 약해진 胃가 따뜻해지도록 한다.

향사육군자탕과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첫째로, 木香과 厚朴, 益智仁을 빼고 香附子和 藿香을 더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木香과 香附子 모두 동무약성가에 따르면 開脾之胃氣 而消食進食 하는 약재인데 굳이 香附子로 대체한 이유는 宿食을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止痛의 효과가 있어 복통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益智仁은 구역을 치료하면서 辛溫한 약재이고, 厚朴은 下氣시켜 脹滿을 치료하는 약재이다. 太陰證의 下利에는 下氣 작용이 강한 厚朴보다 安氣작용이 있는 藿香으로 脾胃의 氣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피하면서 益智仁의 嘔逆을 치료하며 辛溫한 약성까지 대신할 수 있어 厚朴과 益智仁을 藿香으로 대체하였다. 둘째로, 山查가 더해진 점을 들 수 있는데 향사육군자탕이 脾虛에 초점을 둔 처방이라면, 太陰證의 병리는 胃氣虛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健胃하면서 消食작용이 있는 砂仁을 가한 것이다. 셋째로, 향사육군자탕은 개개약재의 용량이 다르지만 『甲午本』의 향사양위탕부터는 개개약재가 모두 1錢으로 통일된다.

이를 기반으로 향사양위탕의 처방을 살펴보면 脾元의 虛弱을 치료하는 사군자탕의 구성처방인 人蔘, 白朮, 甘草 등으로 補脾和脾, 健脾直脾, 固脾立脾하고, 白芍이 脾元을 收斂하여 升陽의 원동력인 脾元을 보익하여 保命之主를 유지시킨다. 또한 食物蹇滯를 화해시키기 위해 半夏, 陳皮, 香附子, 藿香등을 가하여 脾胃의 기를 풀어주고 균등하게 해주며, 健胃消食하는 山查, 砂仁을 가미하여 적체되어 있는 食物을 消導시키도록 한다. 동시에 따뜻하게 하여 胃寒을 풀어주기 위해 白豆蔻를 가하여 구성되어 있다.

3) 『辛丑本』의 香砂養胃湯

『辛丑本』에서는 腎受熱表熱病의 脾局의 陽氣

가 寒邪로 인해 가려지고 腎局의 陽氣가 억눌려 直升하지 못하여 脾局에 연결하지 못하여 小便自利, 少腹硬滿의 증상이 나타나는 생기는 鬱縮膀胱證에 和解시키기 위해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을 사용하며, 陽明病 胃家實의 不大便 증상으로 인한 소복경만이 나타나는 大腸怕寒證에 和解시키기 위해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을 사용한다⁵⁾.

胃受寒裏寒病의 太陰證에 胃弱으로 인한 積滯가 있어 下利淸穀하며 心下痞硬, 脹滿하는 증상에 溫胃而降陰코자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을 사용한다¹⁶⁾. 下利의 병증은 설사 하나 입이 마르지 않고 煩躁하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藿香正氣散이나 香砂養胃湯을 쓰며 少陰證 설사에 비하면 평탄한 지역을 준마를 타고 달리는 듯한 병증이라고 하였다¹⁷⁾.

15) 6-11 論曰 此證 其人如狂者 腎陽因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腎陽因熱則當用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大腸怕寒則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若外熱包裹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 則當用 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 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峻補之.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即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其人如狂者 其人亂言也 如見鬼狀者 恍惚譫語也. 太陽病表證因在者 身熱煩惱而惡寒之證 間有之也. 太陽病外證除者 身熱煩惱而惡寒之證 都無之也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其上策也 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

6-13 張仲景曰 婦人傷寒發熱 經水適來適斷 晝日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 及上二焦 必自愈.

6-14 陽明病 口燥 嗽水 不欲嚥 此必衄 不可下.

6-15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噦 傷寒嘔多 雖有陽明 不可攻. 胃家實 不大便 若表未解 及有半表者 先以桂枝柴胡 和解 乃可下也.

6-16 論曰 右諸證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

16) 7-11 論曰 病發於陰 而反下之云者 病發於胃弱 當用藿香正氣散 而反下大黃下之之謂也 麻黃大黃 自是太陰人藥 非少陰人藥 則少陰人病 無論表裏 麻黃大黃 汗下 元非可論. 少陰人病 下利淸穀者 積滯自解也 太陰證 下利淸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淸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17) 8-1 論曰 發熱惡寒者 爲太陽病 發熱不惡寒者 爲陽明病

太陽陽明之發熱形證 一也 而惡寒不惡寒之間 相去遠甚 而陽氣之進退強弱 泰山之比岡陵也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 一也 而渴不渴之間 相去遠甚 而冷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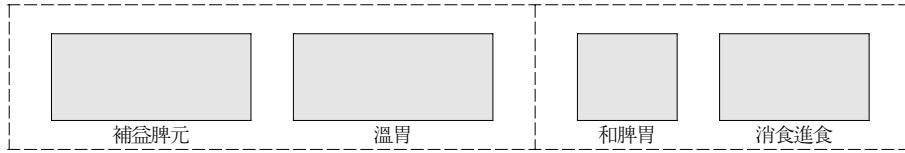


Fig. 1. Compositive principle of Hyangsayangyi-tang

『辛丑本』의 胃受寒裏寒病은 소음인이 胃弱한 데 寒邪를 받아 발생하는데 太陰證은 胃中の 溫氣가 大腸의 寒氣를 이기고 내려가며 발생하는 증세로 溫胃降陰하여 치료한다. 『甲午本』에서는 食物塞滯를 풀어주는 것을 주로 하며 以助溫暖하는 처방을 사용하는 반면, 『辛丑本』에서는 溫胃가 중점이 되고 積滯를 풀어주면서 降陰시켜주는 처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香砂養胃湯¹⁸⁾에서 藿香을 去하고 乾薑을 加하여 改抄하게 되는데 한⁵⁾의 연구에서는 降陰의 원칙이 생기면서 乾薑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기전이나 견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필자는 이러한 변천에 다음과 같은 지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음식물로 인해 滯한 脾胃의 氣를 解鬱시켜 均衡하게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藿香을 거하고, 辛熱하여 溫胃의 작용이 강하면서 嘔逆을 멈추는 작용이 있는 乾薑을 가하면서 人蔘, 白朮, 乾薑, 甘草가 모두 포함되어 溫胃의 대표처방인 理中湯의 의미를 되살리게 된다. 또,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이 『甲午本』에서부터 같은 증상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논술되는데, 『辛丑本』으로 오면서 각 처방의 작용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藿香을 乾薑으로 대체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처방의 역할은 藿香正氣散은 藿香, 紫蘇葉, 桂皮 등이 表邪를 풀어주어 安氣시켜 주며 解鬱之劑를 위주로 하며 靑皮, 大腹皮, 陳皮, 厚朴 등으로 滯를 풀어주고 下氣시켜 大腸怕寒證

이나 太陰證에 胃弱이 심하지 않으면서 腹痛이 동반될 때 쓰거나 惡寒 身體痛 등의 表證이 더 심한 경우에 사용하고, 香砂養胃湯은 人蔘, 白芍藥, 白朮 등의 補脾之劑를 위주로 하면서 山查, 砂仁, 香附子 등의 消食進食하는 약제가 더해져 있어 素證으로 胃弱이 심한편이면서, 실제 食滯가 있고 表證보다 위장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 사용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3. 香砂養胃湯의 구성원리

향사양위탕의 기원처방, 변천과정을 통해 향사양위탕의 구성원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Figure.1에 도표화하였다.

1. 脾元의 虛弱을 치료하는 사군자탕의 구성처방인 人蔘, 白朮, 甘草 등으로 補脾和脾, 健脾直脾, 固脾立脾하고, 白芍이 脾元을 收斂하여 升陽의 원동력인 脾元을 보익하여 保命之主를 유지시킨다.
2. 升陽을 위해 脾胃의 기가 울체되어 固冷積滯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는 胃寒을 제거하기 위해 溫肉理하며 辛熱한 乾薑, 辛熱하며 穢濁한 기운을 제거하는 白豆蔻를 사용하여 溫胃시킨다. 신축본으로 오면서 乾薑이 가미되어 溫胃하는 의미의 이중탕의 개념이 향사양위탕 안으로 포함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太陰證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固冷積滯를 풀어내기 위해 消痰, 行氣 작용이 있는 半夏, 陳皮가 포함되어 있으며 砂仁, 山查, 香附子是 脾胃를 온난케 하면서 開脾之胃氣하고 消食進食하여 食滯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여 응결된 脾胃의 기를 풀어주어 降陰시킨다. (Figure 1.)

之聚散輕重 雲夢之比滯澤也.

是故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之證勢 平地駿馬之病勢也 獨參八物湯 桂附理中湯之證勢 太行短策之病勢也

若使一天下 少陰人稟賦者 自知其病之陽明少陰證如太行之險路 得之可畏 救之不易 攝身療病 戒懼謹慎之道 有若大路然 而不迷 則其庶幾乎.

18) 人蔘 白朮 白芍藥 甘草 炙 半夏 香附子 陳皮 乾薑 山查肉 砂仁 白豆蔻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IV. 結 論

1. 향사양위탕의 기원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향사양위탕은 龔信의 『醫鑑書』출전의 香砂六君子湯을 기원으로 하며, 『醫學綱目』의 錢氏異功散의 活套로부터 처방 구성원리를 일부 계승하였다.
2. 향사양위탕의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의 향사양위탕은 太陰證의 食物塞滯를 和解시키는 效를 강조하고 있어 藿香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향사양위탕에는 固冷積滯의 형성원인인 胃寒을 풀어내기 위해 溫胃의 效를 강하게 하고자 하여 乾薑을 가하여 처방을 완성하였다.
3. 이를 바탕으로 향사양위탕의 구성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향사양위탕은 人蔘, 白朮, 甘草, 白芍藥으로 脾元을 補益하여 保命之主를 유지토록 하고, 乾薑, 白豆蔻로 胃寒을 溫暖하게 해주며, 陳皮, 半夏로 行氣消痰시켜 和脾胃시키고 山查, 砂仁, 香附子로 消食進食시켜 積滯를 풀어주어 降陰이 유지되도록 한다.

V. 參考文獻

1. Han. K.S, Park S.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38-48. (Korean)
2. 김경요, 한종현, 홍형용. 소음인 향사양위탕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2;4(1) :213-219
3. 김경요. 소음인 향사양위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989;1(1):153-170.
4. Choi BC, Ahn TW. Anti-Oxidant Effect of Hyangsayangyi-tang Decoction in Stomach, Spleen and Pancreas Cell of SD Rat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72-84. (Korean)
5. Han KS, Park S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eumin Pharmacology-Focused on Gabobon and Sinchukbon.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2):15-24. (Korean)
6.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Clinical Manual in Dept. of Sasang Constituional Medicine. Seoul: Hanmibook. 2010: 112~113, 127, 134, 139, 205, 210, 217.(Korean)
7. HeoJun. Donguibogam. Hadong: Donguibogam Publication. 2005:392, 666, 1224. (Korean)
8. Korean Sasang Constituional Medicine classroom.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Jipmoondang. 2004:651-666. (Korean)